

청소년 인터넷 비행의 발생 경로에 대한 연구

김 예 성¹⁾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김 세 원²⁾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비행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3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비행이론인 일반이론(General theory)과 사회적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충동성은 직접적으로 인터넷 비행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인터넷 사용수준의 증가를 매개로 하여 인터넷 비행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가족관계와 학교적응이 인터넷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사회유대를 통한 인터넷비행의 통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인터넷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인터넷 비행, 일반이론, 사회유대이론, 충동성

1) 주저자 : 김예성 (E-mail : yskim98@suwon.ac.kr)

2) 교신저자 : 김세원 (E-mail : sewonkim1@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2005년 말 이미 3,300만 명을 돌파하여 전 국민의 75%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특히 청소년연령에서는 99% 이상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볼 때(정보통신부, 2006),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은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주요한 부분 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사용은 생활을 보다 편리 하게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익명성이란 특성으 로 인해 다양한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등 윤리 적인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가상공간은 사회실재감이 낮다는 특성으로 인 해 어느 정도 무책임을 허용하는 공간으로 인 식되거나 그에 따라 상대방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덜 심각하게 인지하게 되고 그만큼 자신 의 위반행위가 나쁘다는 인식이나 죄책감도 낮다는 특성을 지닌다(김진희, 김경신, 2003; Kiesler, Siegel & McGuire, 1984). 그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의 범람, 해킹, 아이디도 용, 인터넷 사기, 도박 등 다양한 문제행동과 범죄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 가지 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그로부터 제공되는 흥 미롭고 다양한 요소들, 익명으로 접속하여 자 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자 유로움은 인터넷 공간에 끊임없이 몰입하게 만드 는 근원이 된다. 청소년만의 문화가 부재

하고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시설이 부족한 우 리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은 청소 년들에게 있어 새로운 문화생성의 공간이자 현실도피 수단이 되는 한편, 범죄와 비행 을 저지르게 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경남, 하연미, 2004).

인터넷 비행은 사이버비행, 온라인비행, 인 터넷 일탈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개 념 또한 연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온 경향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정의된 개념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사용한 범죄’ 또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활동’, ‘인터넷을 통 해 인터넷상에서 또는 현실상에서 이루어지는 비행’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asey, 2000; 조남근, 양돈규, 2001).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비행으로는 인터넷 상의 폭력, 스팸메일, 음란물 접촉, 음란성 채팅 및 대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도박 및 사기, 불법적 인터넷 사이트 운영,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교 무단결석, 무단이탈, 외박,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불법적 거래와 판매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 인터넷 관련 비 행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지위 에 맞지 않는 행위인 지위비행, 음란한 대화 나 음란물 접촉과 같은 성적 행동과 관련된 성비행, 타인의 물질적 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에 관련된 재산비행, 폭언이나 폭행과 같 은 부적응적 행위에 관련된 폭력비행 등이 포 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민오, 2000).

이러한 인터넷 비행은 익명성, 비대면성, 낮 은 죄의식, 중독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인터

넷 상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손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비대면성으로 인해 상대의 입장과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 비행이 전통적 범죄에 비해 죄의식을 낮게 느끼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또한 이들은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조작기술을 즐기면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거나 인터넷 비행을 사이버상 게임의 한 부분으로 범죄와 무관한 단순 유희의 동기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음란채팅, 음란물 검색 등의 행위, 사이버스토킹, 해킹 등의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탐닉하게 되는 특성을 나타낸다(한중옥, 2001).

이처럼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이 사회적으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비행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비해 비행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이래 주로 개념 및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천정웅, 2000)와 인터넷 비행 관련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라민오, 2000; 양돈규, 2000; 김재휘, 김지호, 2002), 나아가 현실 비행을 설명하는 비행이론들을 적용하여 인터넷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이성식, 2005; 정유현, 2006).

인터넷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써 대표적으로 일반이론(General theory)과 사회유

대이론(Social bond theory)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이론은 충동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저지르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대표적 학자인 Gottfredson과 Hirschi (1990)는 일반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비행이 순간적 만족과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충동성 또는 낮은 자기통제력에 근거한 범죄이론을 주장하였다. 자기통제력이란 일시적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지,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는지, 근시안적이기보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반응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하지 못하며 미래상황에 대한 계획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특징을 보인다(Barratt, 1983; Eysenck, 1985).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과 반사회적 행동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이 낮아짐으로써 비행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Moffitt, 1993). 이같은 성향은 어릴적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모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무계획적인 생활습관이 방치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자라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내적으로 낮은 통제력과 충동적 성향이 형성되고, 이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성향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처럼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고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비행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나타나게 되는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 학업과 학교적응의 실패, 비행친구와의 접촉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은 모두 충동성과 자기통제력 부족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써 비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충동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설명된다. 최근 메타분석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범죄의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Pratt & Cullen, 2000; 민수홍, 2005).

이같은 현상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순간적인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행사하게 되며, 재미삼아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띄우고,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이해경, 2002). 이성식(2005)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비행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친구유대, 인터넷 비행에 대한 태도나 신념 등의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준오의 연구(2004) 및 이경남과 하연미의 연구(2004)에서도 충동성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김재휘와 김지호의 연구(2002)에서 충동성은 인터넷 일탈행동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와 연결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비행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비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러한 비행기회는 비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여건,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감시상황의 부재로 설명되며(Smith, 2004),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이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비행의 기회를 높이는 변인으로서 인터넷 사용 시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사용 시간과 활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비행을 저지를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인터넷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현실 공간에 비해 비행을 저지르기가 용이하므로,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한 행위도 시도하게 되는 일종의 모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국내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인터넷 비행 발생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양돈규, 2000; 라민오, 2001; 이성식, 2004), 박자양(2005)의 연구에서도 충동성은 인터넷중독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이론과 아울러 또 다른 주요 비행이론으로 사회유대이론을 들 수 있다.

Hirschi(1969)는 저서 ‘비행의 원인’을 통해 비행행위는 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해지거나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행에 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찾기보다는 부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주목한다. 즉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할 때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어떠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가?’가 아닌, ‘왜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행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며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비행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사회는 건전하고 인습적인 사회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탈적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탈적 동기가 사회적인 유대로부터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며, 개인과 사회간 유대가 약화되거나 와해될 경우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인습적인 사회에서 벗어날수록 비행가능성은 높아지게 마련이며 사회와 유대를 가질수록 비행동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유대의 주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높고 어느 한 요인의 약화는 다른 한 요인의 약화를 동반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타인 또는 사회통제기구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은 범죄를 방지하는 최고의 도구라 보았으며,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학교, 친구와의 유대나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

소통 정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등을 의미하며, 학교에 대한 애착 정도는 학교에 대한 동일시, 학교에 대한 태도, 선생님에 대한 동일시, 학습능력 등을 포함한다. 관여란 대상이 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공부에의 관여 정도가 높아 공부에 흥미가 높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비행으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손실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관여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비행으로 인해 잃어버릴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주저함 없이 비행에 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참여는 인습적인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학교공부나 과외활동, 취미나 여가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바쁜 나머지 비행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념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정, 특히 법과 사회규칙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의하면 학교나 친구와의 애착보다는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에 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와 자녀간 신뢰와 애착이 존재하여 부모와 유대가 강하게 형성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Hirschi, 1969; Wiatrowski, Griswold & Roberts, 1981; Cernkovich & Giordano, 1992).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나 비행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및 비행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친밀도 및 의사소

통 정도가 낮고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도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백옥현, 백대준, 2002; 하연미, 2003; 손진희, 손은령, 2007). 윤영민(2000)은 부모와의 약한 사회유대가 인터넷음란물 접촉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장준오(2004)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과 통제부족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종욱(2001)의 연구에서도 사회유대 요인들은 사이버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정도가 과도한 학생들의 경우 이로 인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및 학업성적에도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에 의해 부모 그리고 학교에 대한 유대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인터넷 비행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경우 현실과는 다른 가상공간으로 익명성이나 자아혼돈과 같은 새로운 설명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또한 청소년들에게 현실과 마찬가지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생활의 측면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만큼 이같은 현실의 비행이론을 적용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유현(2006)의 연구에서는 자아통제력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들은 현실비행과 인터넷비행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인터넷 비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문제 및 비행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적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을 찾아 줄이거나 제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인들을 찾아 이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비행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들에서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경로모형을 검토하는 것은 개입의 요소와 지점을 확인하는 데에 보다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주요이론들을 근거하여 인터넷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를 연구모дел로 설정한 뒤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일반이론과 사회유대이론에 근거하여 위의 그림 1과 같은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인터넷 사용 정도의 증가를 매개로 하여 인터넷 비행 증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높은 충동성과 인터넷 사용 정도는 가족관계와 학교적응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같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인터넷 비행이 증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검증한 후 이론적 의미와 통계적 유의미도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매개경로를 순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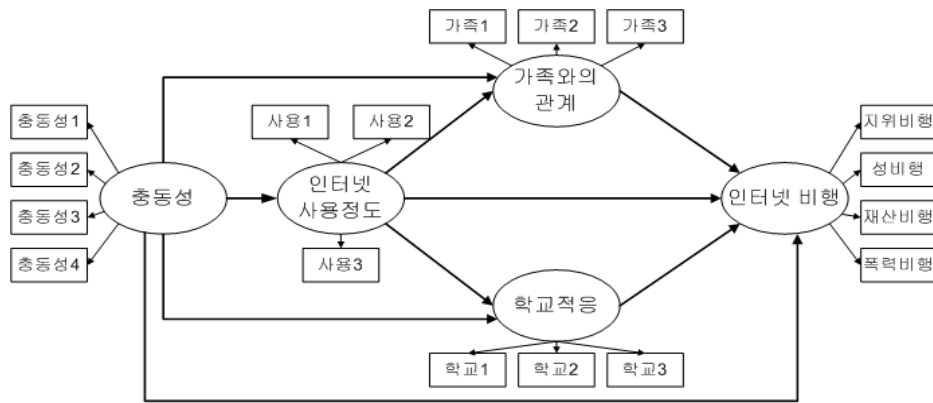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으로 제거하는 구조방정식의 모델생성전략(model generating strategy) 과정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되 경험적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간명하면서도 이론적 설명력을 고루 갖춘 최적의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배병렬, 2004).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시 재학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서베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모집단인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는 중학생 약 37만 명, 고등학생 약 34만 명이며, 중학교는 364개교, 고등학교는 295개교로 이 중 실업계 고등학교는 80개교이다(서울교육통계연보, 2004). 이러한 수치에 기반하여 층화 집락표집방법에 의해 학교를 단위로 표본을 추출한 뒤 성별 및 학교급별 학생수에 대한 모집단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모집단으로 설정된 중학교 2, 3학년

과 고등학교 1, 2학년의 수는 약 45만명으로 이 중 0.3%에 해당하는 1350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현재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하여 학급 수와 학교 수를 추정하였으며,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내 각 구단위로 학교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중학교 9개교, 인문계고등학교 9개교, 실업계고등학교 2개교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각 학년 당 한 학급씩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총 20개교 40학급,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05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선정된 학교들에 연락을 취하여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협조하기로 한 경우 조사의 안내문과 설문지를 우편으로 우송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두 1427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1366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주요변수

종속변수: 인터넷 비행

인터넷 관련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돈규(2000)의 인터넷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응철(1992)이 Clinard와 Quinney(1973)의 범죄분류 및 Sanders(1981)의 청소년 비행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한 청소년 비행경험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비행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귀가시간 위반 및 수업불참, 음란물 사이트 접속,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인터넷 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욕설, 인터넷 도박,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한 대화, 성인 인터넷방송 시청 등 10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해 보면, 지위비행 2 문항(귀가시간에 늦음, 수업에 빠짐), 성비행 3 문항(음란사이트 접속, 음란한 대화,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폭력비행 2문항(욕설, 비방), 재산비행 3문항(도박, 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1점), 아니오(0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비행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01로 확인되었다.

예측변수

충동성.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라민오(2000)의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라민오(2000)가 이현수(1993)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아이젠크(Eysenck) 성격검사에서 충동성 척도(Impulsivity: I)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한군데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기 힘들다’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69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정도. 인터넷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빈도, 하루 평균 사용 시간, 과잉사용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관한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주일에 2-3회 사용한다’, ‘매일 사용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30분 미만에서 30분 단위씩 끊어 7시간 이상까지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할 때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까지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 가족과의 관계 및 가족들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준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2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 또는 몰입에 관한 문항을 통해 학교적응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와 문민식(2001)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검사 척도를 기반으로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는 성적, 공부에 대한 취미, 수업참여 태도, 학습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가치관,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해 학교몰입 수준을 측정하였다. 모두 18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86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 뒤, 인터넷 비행 유형에 따른 발생율을 제시하였다. 다음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인터넷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하는 동시에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가정된 모델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배병렬, 2002).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수 추정과 함께, 추정된 모형이 관측된 자료를

어느 정도 적합시키고 있는지 전반적인 적합도(fit)를 수치로 보고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도출되는데, 이는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Index) 값을 제시하였다.

편의(bias)가 적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을 시행하기 전 결측치와 항목묵기(item parceling)를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mos 프로그램 내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 추정방법인 FILM(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잠재변수로 사용되는 모든 측정변수에 대해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항목묵기를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절에서는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터넷 비행경험 특성에 대해 기술한 후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구조모델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모델 추정의 엄밀성을 높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분석방법상 측정과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오류와 인과관계의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한 후,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구조모형을 찾기 위한 모형 수정을 시도하고 최적의 모델로 검증된 모형을 중심으로 효과분해를 제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650명(48.3%), 여학생이 694명(51.6%)으로 여학생의 수가 조금 더 많으며,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만 15.3세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중학생 604명(44.9%), 인문계고등학생635명(47.2%), 실업계고등학생 105명(7.8%)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관계는 양친부모가 계신 경우가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5.8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0세,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92.3%가 고졸 이상, 어머니의 87.8%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약2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인터넷 비행 수준에 대하여 전체 발생율과 유형별 발생율을 검토하였다. 지난 1년 동안 10가지 인터넷 비행 중 한 가지

라도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16명으로 전체의 약 81.7%에 해당하였다. 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70명(51.5%), 여학생이 536명(48.5%)를 차지하여 남학생이 조금 많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급별로 인터넷 비행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중학교 2학년에서는 82.5%, 중학교 3학년에서는 80.1%, 고등학교 1학년의 86.5%, 고등학교 2학년의 88.4%가 인터넷 비행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 비행 유형별로 유경험자의 비율을 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상대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등을 의미하는 폭력비행의 경우 약 7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

표 1. 유형에 따른 인터넷 비행 경험율

인터넷 비행 유형	경험자	(%)
폭력비행	944	(71.7)
재산비행	718	(54.5)
성비행	601	(45.7)
지위비행	302	(22.9)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왜도, 첨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표준편차)	첨도(표준편차)
충동성	1325	33.54	5.86	.021(.067)	.505(.134)
인터넷 사용정도	1281	8.24	2.08	.031(.078)	.932(.156)
가족관계	1354	19.06	4.70	-.528(.066)	-.365(.133)
학교적응	1336	54.31	11.03	.030(.067)	.142(.134)
인터넷비행	1326	2.86	2.06	.411(.067)	-.492(.134)

였으며, 다음은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 도박,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과 같은 재산비행, 음란 사이트 접속, 음란대화, 원조교제나 성매매와 같은 성비행,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귀가 및 등교 지장과 같은 지위비행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치 외에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의 다변량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대값 3미만, 10미만으로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일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인터넷 비행 발생 경로 검증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충동성, 인터넷 사용정도, 가족관계, 학교적응, 인터넷비행 정도는 이론적 개념(잠재변수)으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390.334이며, 자유도는 109,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나, χ^2 값은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

표 3.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경로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충동성 1 ← 충동성	1.000	.572		
충동성 2 ← 충동성	.491	.366	.048	10.149***
충동성 3 ← 충동성	.462	.514	.035	13.006***
충동성 4 ← 충동성	.889	.682	.060	14.761***
하루 사용시간 ← 인터넷 사용	1.000	.756		
과잉사용여부 ← 인터넷 사용	.224	.526	.022	10.156***
사용빈도 ← 인터넷 사용	.186	.445	.020	9.155***
가족관계 1 ← 가족관계	1.000	.911		
가족관계 2 ← 가족관계	.937	.900	.020	46.377***
가족관계 3 ← 가족관계	.450	.822	.011	40.258***
학업태도 ← 학교적응	1.000	.840		
학교애착 ← 학교적응	.505	.622	.025	20.321***
수업태도 ← 학교적응	.336	.641	.016	20.856***
재산비행 ← 온라인비행	1.000	.642		
성비행 ← 온라인비행	.940	.690	.061	15.340***
폭력비행 ← 온라인비행	.907	.587	.062	14.741***
지위비행 ← 온라인비행	.413	.396	.037	11.095***

지수이니만큼 다른 적합도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CFI는 .956, NFI는 .940, RMSEA는 .043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과 요인적재량을 고려하여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것을 준거지표로 삼았다. 측정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충동성, 인터넷 사용정도, 가족관계, 학교적응, 인터넷비행 정도에 대한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분석

앞서 설정한 구조모형에 대하여 이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χ^2 값은 452.347, 자유도는 110, $p=.000$ 이며, CFI

는 .946, NFI는 .930, RMSEA는 .048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초기구조모형은 자료에 합치하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완전구조모형 분석결과 나타난 개별 모수치와 경로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충동성이 높을수록(.198) 인터넷 사용정도가 증가하며, 가족관계(-.360)와 학교적응 정도(-.690)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정도가 증가할수록 가족과의 관계(-.073)와 학교적응(-.207)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며, 인터넷 비행 수준도 높아지는(.258)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은 인터넷 비행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론적 배경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충동성이 비행기회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일반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사용정도가 높으며, 이를 통해 결국 인터넷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가족이나 학교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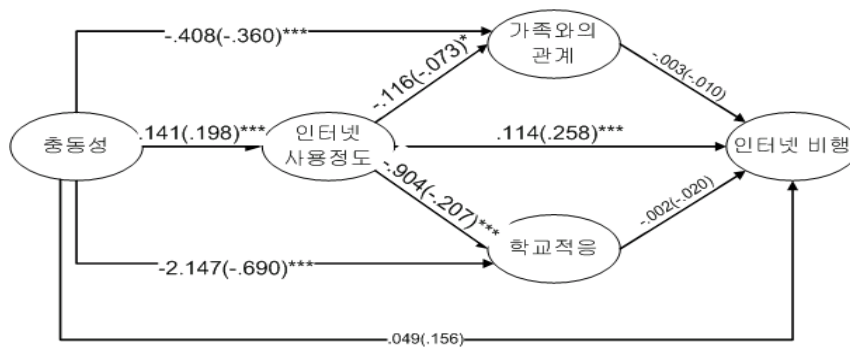


그림 2. 초기구조모형 경로계수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충동성 → 인터넷 사용정도	.141	.198	.031	4.522***
충동성 → 가족관계	-.408	-.360	.043	-9.496***
충동성 → 학교적응	-2.147	-.690	.149	-14.368***
인터넷 사용정도 → 가족관계	-.116	-.073	.057	-2.049*
인터넷 사용정도 → 학교적응	-.904	-.207	.165	-5.472***
인터넷 사용정도 → 인터넷 비행	.114	.258	.022	5.202***
가족관계 → 인터넷 비행	-.003	-.010	.011	-.276
학교적응 → 인터넷 비행	-.002	-.020	.008	-.265
충동성 → 인터넷 비행	.049	.156	.026	1.918

애착이 비행의 가능성이 막아준다고 본 사회 유대이론은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인터넷 사용정도는 가족과의 관계 및 학교적응 수준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한 사회적 유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비행을 통제하는 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보다 간명하면서도 자료에 부합되는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모형 다듬기를 실시하였다. 모형을 수정하는 전략은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된

경로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원래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퇴하지 않는지, 즉 불일치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카이제곱통계량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가장 간명한 모형으로 얻어진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χ^2 값은 452.502, CFI는 .946, NFI는 .930, RMSEA는 .047로 나타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자료에 합치하는 모형임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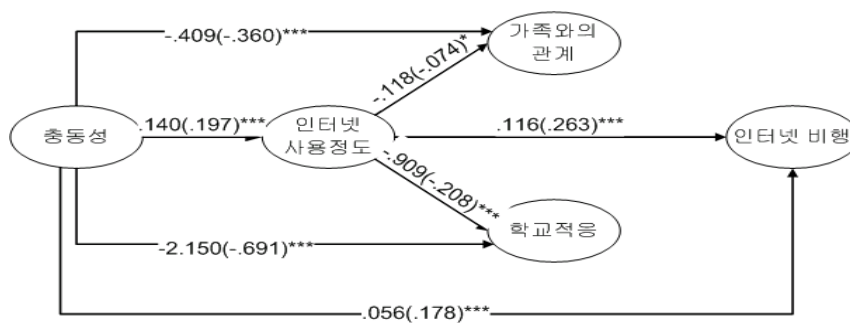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

표 5.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충동성 → 인터넷 사용정도	.140	.197	.031	4.509***
충동성 → 가족관계	-.409	-.360	.043	-9.513***
충동성 → 학교적응	-2.150	-.691	.149	-14.402***
인터넷 사용정도 → 가족관계	-.118	-.074	.057	-2.083*
인터넷 사용정도 → 학교적응	-.909	-.208	.165	-5.522***
인터넷 사용정도 → 인터넷 비행	.116	.263	.020	5.704***
충동성 → 인터넷 비행	.056	.178	.013	4.336***

수 있다. 또한 초기모형과 비교해볼 때, 카이 제곱통계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서 적합도지수가 높아져, 수정을 통해 모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간명도가 향상된 모형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과 표 5를 통해 수정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초기모형에서는 .05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던 충동성 → 인터넷 비행의 경로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되어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비행의 발생에 있어 일반이론의 설명력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높은 충동성이 직접적으로 또는 비행기회를 통하여 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경로계수 수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분해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변

수들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최종모형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비행의 발생 경로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충동성은 인터넷 사용수준에 직접효과를 지니며(.197), 인터넷 비행에 대해서는 직접효과(.178)와 간접효과(.052)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

표 6. 최종모형 변수의 효과분해: 표준화계수

	인과효과	충동성	인터넷 사용수준
인터넷 사용수준	직접 효과	.197	
	간접 효과	-	
	총 효과	.197	
가족관계	직접 효과	-.360	-.074
	간접 효과	-.015	-
	총 효과	-.375	-.074
학교적응	직접 효과	-.691	-.208
	간접 효과	-.041	-
	총 효과	-.732	-.208
인터넷 비행	직접 효과	.178	.263
	간접 효과	.052	-
	총 효과	.230	.263

수준은 가족관계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를 지니지만 가족관계와 학교적응이 인터넷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러한 변수를 통한 경로는 성립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충동성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인터넷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충동성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터넷 비행을 높이는 것으로 그 효과는 .178이다. 두 번째는 충동성이 인터넷 사용수준을 높이고(.197), 인터넷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비행이 높아지는(.263) 경로로, 이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52(.197×.263)이다. 결과적으로 충동성이 인터넷 비행에 대해 지니는 총효과는 .230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비행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3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주요 비행이론인 일반이론과 사회적유대 이론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충동성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비행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인터넷 사용수준의 증가를 매개로 하여 인터넷 비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동성이 그 자체로, 또는 증가된 비행기회를 통해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비행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일반이론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다. 이경남과 하연미의 연구(2004)에서

도 충동성은 인터넷관련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 인터넷비행, 인터넷 게임중독 등 인터넷 관련한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라민오, 2000; 이해경, 2002). 충동성은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특성이자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비행을 반복하게 하는 요소로 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Moffitt, 1993; Logue, 1995).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즉각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충동적 성향은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생활에서는 자신의 충동적 행동에 대해 책임이나 처벌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상에서는 규범적 통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이론을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에 적용하여 비교한 정유현의 연구(2006)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온라인비행과 오프라인비행 모두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충동성과 인터넷사용 정도는 가족관계와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인이 인터넷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족이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유대가 비행의 유발 가능성을 통제한다는 사회유대이론은 본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유대이론의 경우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이론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로 사소한 지위비행을 설명할 뿐이며 다른 이론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Matsueda, 1982). 온라인폭력비행과 오프라인 폭력비행의 원인을 비교한 이성식(2006)의 연구에서 사회유대이론은 두 가지 유형의 비행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인터넷 관련 비행에 개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동통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터넷 비행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제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조절능력을 기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고 인터넷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요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및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기관리와 시간관리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지행동모델 프로그램들은 유용한 개입방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ung, 2000). 나아가 자기통제력은 어릴적부터 형성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질로 알려져 있는 만큼 조기개입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길러주는 교육방안의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과 인터넷 사용시간은 인터넷 비행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통제력 강화와 아울러 부모나 성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슈퍼비전을 통해 인터넷 사용시간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

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비행에 관련한 윤리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가치철학과 네티켓(netiquette)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비행의 범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같은 행위를 비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정유현, 2006),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비행의 정확한 정의를 통해 비행을 인식하게 하고 윤리적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사이버비행이나 범죄의 경우 기술적 조치나 실명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대책 마련에 힘써 왔으나 사이버 비행도 현실비행과 마찬가지로 자기통제력 향상이나 윤리교육과 같은 개인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성식, 2005).

아울러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주요 동기가 재미와 자극적 쾌락을 찾기 위함인 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하면서도 흥미있는 여가와 취미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관계와 학교적응 변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인터넷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 비행과 부적 관련성을 지니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터넷 비행과 관련해서도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인터넷관련 비행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바 있다(이경남 하연미, 2004).

부모와 학교환경이야말로 충동성과 인터넷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인 만큼 긍정적 가족관계와 학교 적응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성원들 모두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모형검증시 연구대상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를 세분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들을 세분화하는 한편 인터넷 비행의 유형에 관해서도 구분하여 다룬다면 인터넷 비행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종단적 데이터를 통한 경로모형이 설정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보다 큰 설명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재휘 김지호 (2002). 인터넷 일탈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91-110.
- 김진희 김경신 (2003).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버관련 비행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1), 85-97.
- 라민오 (2000).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 문민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 민수홍 (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박자양 (2005). 청소년의 역기능적 심리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모형 검증.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백옥현, 백대준 (2002).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지역발전 연구, 2(1), 155-172.
- 손진희, 손은령 (2007). 가정환경, 컴퓨터 과다 사용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1), 135-162.
- 심응철 (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윤영민 (2000). 청소년 인터넷사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2, 133-153.
- 이경남, 하연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 이성식 (2004).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기존 현실일탈에서의 주요 요인의 적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1), 121-154.

- 이성식 (2005). 사이버상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227-249.
- 이성식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0.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 이현수 (1993). 이상행동의 심리학. 서울: 대왕사.
- 장준오 (2004). 사이버상의 청소년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부 (2006). 2006 정보화실태조사.
- 정유현 (2006). 청소년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의 원인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 조남근 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조해연 (2001).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 특성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천정웅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하연미 (2003).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친구지지 및 충동성이 인터넷관련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한종욱 (2001). 청소년 사이버비행자의 사회유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3권, 357-384.
- 홍복현 (2006).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비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Barratt, E.,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S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 J.: Erlbaum.
- Casey, Eoghan. (2000).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rncovich, S. A. & Giordano, P. C.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261-291.
- Clinard, M. B., & Quinney, R. (1973). *Criminal Behavior System: A Ty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A natural sciences approach*. NY: Plenum Press.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esler, S., Siegel, J., &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y*, 39, 1123-1134.
- Logue, M.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Matsueda, P. 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y Review*, 47, 489-504.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505-674.
 - Pratt, T. C. & Cuu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Smith, T. R. (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 542-563.
 - Sanders, W. B. (1981). *Juvenile Delinquency: Cause, Patterns & Re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 Wiatrowski, M. D. Griswold, D., & Roberts, M. (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25-541.
 - Young, K. S. (2000). 인터넷 중독증. 김현수 역. 서울: 나눔의 집.
- 1 차원고접수 : 2008. 06. 30.
수정원고접수 : 2008. 09. 08.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A Study of Paths of Internet Delinquency Development in Adolescents

Kim, Ye-Su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Suwon University

Kim, Se-Won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s of the related variables that exert an influence upon the internet delinquencies of adolescents. 136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the Seoul area provided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Based on General theory and Social bond theory, both of which are known as the main juvenile delinquency theories, the research model was composed and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Impulsiveness directly and indirectly had an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internet delinquency, using the level of internet use as a mediator.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General Theory as an explanatory factor in internet delinquency. However, Social Bond Theory was not applicable because social bond factors like family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do not have any influence on internet delinquency.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that programs for promoting the self-regulation of adolescents and controlling the level of using internet use are useful ways of intervening and protecting those vulnerable to internet delinquency.

Key words : internet delinquency, General theory, Social bond theory, impulsiveness